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c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본당 소식

- ◆ 11 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삶과 죽음의 의미를 특별히 되새기는 이 시기에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받은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합시다.
- ◆ **예비신자 교리 신청 안내**
 * 신청하실 분은 곽광주 예로니모 형제님 (614-214-6770)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치의 모후 꾸리아 모임**
 - 일시: 11 월 2 일(일) 오후 2 시 45 분
 - 장소: Parish Center
- ◆ **성가단원**을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성가단장 박영주 마리아 자매님 (614-315-8598)에게 연락바랍니다.
- ◆ 매월 둘째 수요일, 본당 **빈첸시오회**에서 **홍리스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매월 둘째 수요일 12 시-1 시
 - 장소: Faith Mission Shelter (599 E 8th Ave. Columbus)

- ◆ **이호영 구역모임**
 - 일시: 11 월 8 일(토) 저녁 6 시
 - 장소: 박석현 알비노 형제님덕 8190 Shannonglen Blvd. Dublin, OH 43106 (614)873-2018
- ◆ **친교 준비 봉사자**
 - 11 월 2 일: 유은주
 - 11 월 9 일: 김명호
- ◆ **11 월 친교 후 정리 봉사:** 정하상 구역
- ◆ **2008 년 BAA (Bishop's Annual Appeal)** 모금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6,427 이며 지난 주까지 모금액은 \$5,990 입니다.
 -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Bishop's Annual Appeal)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the Diocese of Columbus

연중 제31주일 (위령의 날) November 2, 2008



<성 요셉의 임종>

교야(1746~1828), 유화, 산타아나 수도원, 바야돌리드, 스페인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426.00
교 무 금	\$1,200.00
BAA	\$170.00

- **교 무 금:** 서태수 조한벽 서경환
- **BAA :** 사윤진 익명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지혜서 3,1-9

“하느님께서는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화답송



제 2 독서 로마서 5,17-21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11,25-30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2,635단 19명
이호영	103단 명	13,411단 77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6,895단 71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학생 구역	단 명	10단 2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103단 명	2/22/04-10/26/08 (245주)

☞ 총누계: 204,071단 12,688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11월 2일	11월 9일
전례준비	김준식	서인원
해설자	곽광주	고상식
독서/봉헌	서태수 제갈젼마 이호영 구역	황석두 구역
보편지향 기도	평화의 모후	상지의 옥좌

오늘의 성가

♫ 입당: 229 ♫ 봉헌: 511
♫ 성체: 157 498 ♫ 파견: 471

위령의 날

박성철 미카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11월은 우리들보다 앞서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위령 성월입니다. 날씨가 음산한 11월이라 우리들의 죽음을 묵상하기에도 좋은 달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관련해서 “돌아가다”라는 동사를 흔히 사용합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돌아가다”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요한 11,28).

주님께서는 진리이신 하느님께서로부터 온 존재임을 몸소 느끼셨습니다. 또한 진리이신 그분께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모름지기 인간은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를 보내주신 하느님과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하느님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입니다. 나를 보내주신 분이 하느님이요 죽음 후에 나를 기다리는 분이 하느님입니다. 우리네 인간은 이렇게 하느님과 하느님 사이에 있는 사이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흉과 친해진다고 합니다. 흉과 날로 친해지다가 흉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사건, 그것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하느님으로부터 와서 하느님으로 돌아가고 이야기합니다.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왔다가(如來 여래) 가는 것(善逝 선서)입니다. 흉과 친해지다가, 흉을 닮아가다가, 마침내 흉으로 돌아가 흉과 하나 되듯이, 하느님과 친해지다가, 하느님을 닮아가다가, 마침내 하느님으로 돌아가 하느님과 하나 되는 사건! 그것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은 뜻난 인간이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은총의 사건입니다.

세네카는 “철학자들의 일생은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하느님께 잘 돌아가기 위해서(善逝 선서),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친 욕심을 하루하루 벗어 던져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욕심을 덜어내고(人欲日消 인욕일소), 하루하루 하느님의 빛으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天理日明 천리일명).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행복한 시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욕심의 옷을 마침내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이 빛으로 가득 찬 날, 우리들은 죽음을 통하여 마침내 주님을 뵈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미리미리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루하루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